

## 여름엔 역시 '오싷한 공포' 추리소설로 '북캉스' 떠나요

여름엔 역시 '추리·공포소설'이 제격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용' 소설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등골이 오싷한 추리, 스릴러, 공포소설을 읽는 것도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듯하다.

국내 작품으로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해마다 펴내는 '올해의 추리소설'의 2010년 권 '악마는 꿈꾸지 않는다'(화남 펴냄)가 눈에 띈다.

일본 추리소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침체한 한국 추리소설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젊은 작가들이 여럿 참여한 소설집이다. 류성희씨의 표제작을 비롯해 정석화씨의 '꿈 인형을 안은 소녀', 최종철씨의 '그놈이 그놈', 신재형씨의 '나의 치명적인 연애' 등 11편을 실었다.

쥬미 아포칼립스(Zombie Apocalypse) 문학



다거온다.

일본 미스터리물은 여름 시즌을 맞아 가장 활발히 선보이는 장르 중 하나다. 오리하라 이치의 장편 '원죄자'(플라북스 펴냄)는 연쇄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 고 주장하는 무기징역수와 진실을 파헤치려

그 외 기선 나누라들에게 놀러 사는 네 남자가 아내를 죽이는 법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아카가와 지로의 '약처에게 바치는 레퀴엠'(살림 펴냄), 낭만적인 바닷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 같은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와카타케 나나미의 '빌라 매그놀리아의 살인'(작가정신 펴냄) 등 유머러스한 반전이 숨은 작품도 나왔다.

영미권에서는 연이어 영화와 계약을 체결하며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스릴러 작가로 우뚝 선 마커스 셰이키의 데뷔작 '칼날은 스스로를 상처입힌다'(황금가지 펴냄)가 눈에 띈다. 시카고를 배경으로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는 남자의 파멸리는 인생을 그린다.

'프리쳐'(살림 펴냄)는 여가주 크리스티의 계보를 이을 작가로 주목받는 카밀라 레크레리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 미스터리를 다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휴가철 맞아 '여름용' 소설 붐물 책 속에 빠지면 불볕더위 '싸악~'

공모전 수상 작품을 모은 '섬, 그리고 쥬미'(황금가지 펴냄)도 출간됐다. 쥬미로 뒤덮인 세계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의 생존기, 용산 참사에서 서부터의 쥬미의 정치적 테러, 쥬미에 둘러싸인 채 홀로 교도소를 지키는 자의 투쟁기 등 당선작 1편, 가작 3편,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 추천작 1편까지 총 5편의 중·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매년 여름 출간되는 공포 소설집 '한국 공포 문학 단편선 5'(황금가지 펴냄)도 볼만하다. 김중일·이종권·장은호·류동욱·모희수·우병희씨 등 인기 작가와 신예 작가들이 참여해 10가지 공포를 선보인다. 머리 긴 여자 귀신 같은 오래된 공포 소재보다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에서 깽깽이낸 공포가 더 섬뜩하게

작가의 이야기를 그린다.

2005년 '벗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가 발간된 이래 여전히 국내 독자들에게 알려진 우타노 쇼고의 신작 '시체를 사는 남자'(한스미디어 펴냄)도 출간됐다. 에도가와 란포와 하기와라 사쿠타로라는 실존 인물이 탐정으로 등장하는 이 소설은 엄밀한 계산이 적용된 트릭과 정교한 논리 전개로 시종 독자의 예상을 무너뜨리며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10년 만에 재출간된 덴도 아라타의 '영원의 아이'(전2권 북스피어 펴냄)는 깊은 상처를 입고 자라난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성장기를 통해 아동 학대와 가족의 붕괴를 그린 미스터리 소설이다.



전자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교보문고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본부인 디지털교보문고는 최근 출간된 소설가 김별아의 '가미가제 독고다이'(해남 펴냄)와 소설가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문학동네), 만화가 허영만의 여행 에세이 '집 나가면 생고생 그래도 나간다'(가디언)의 전자책을 내었다.

## 인기작가 신작 '전자책'으로 본다

김별아·김영하·허영만 등 종이책과 동시출간

전자책 가격은 일반적으로 종이책 가격의 50~60% 수준으로, '가미가제 독고다이' 전자책은 8400원, '집 나가면 생고생 그래도 나간다'는 7800원이다. 김영하의 신작은 아직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하 작가의 신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외에 '퀴즈쇼', '빛의 제국' 등 기존 작품 6종을 묶은 '김영하 컬렉션'(문학동네)의 전자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설가 박범신은 올 4월 초 신작

장편 '은교'(문학동네)를 출간하면서 전자책을 함께 내었으며, 소설가 김진명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소설 7종을 한데 묶은 '김진명 베스트 컬렉션'(새움)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 출간한 바 있다.

총 7만1000여종의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한 교보문고는 매월 100여종씩 전자책 콘텐츠를 늘리는 등 전자책 사업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전작인 약 1200명에게 전자책 단말기를 지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김C '뜨거운 감자' 광주 공연

베이스기타 고범준과 함께

1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C는 '1박 2일'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지만 오랫동안 뮤지션으로도 꾸준히 활동해 왔다.

김C가 베이스 기타의 고범준과 함께 꾸린 '뜨거운 감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갖는다. 14일 오후 6시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1997년 밴드를 결성한 후 모두 4장의 음반을 발매한 뜨거운 감자는 잔잔한 멜로디와 감성 넘치는 노랫말로 매니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그룹이다.

지난 3월 발매된 다섯번째 앨범 '시소'는 기존 앨범과 달리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언급되면서 '음악인 김C'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특히 사랑의 설레임과 떨림을 노래한 '고백'은 각종 음원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배우나와 김태우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비디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3년 동안 몸담았던 '1박 2일'을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

며 전국 투어에 진행중인 '뜨거운 감자'의 김C는 이번 공연에서 '고백'을 비롯, 이별을 이야기하는 '시소' '진취적인 그녀' '빈방' 등 새 앨범 수록곡들과 기존 음반에 실렸던 노래들을 들려준다. 티켓가격 전석 55000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청년 작가들 서울 전시회

강동권 등 46명 10일까지 '갤러리 라이트'

광주 청년 작가들이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 라이트는 오는 10일까지 '광주청년미술작가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권·김숙민·노미라·도수연·문형선·박은아·박현규·배현철·안태영·위진수·위재환·오현진·이민영·이이남·이환규·장용훈·조대원·조선아·최미연·최대주·한부철씨 등 46명이 참가한다.

강동권씨는 강렬한 원색을 여러 번 덧칠해가며 탄생시킨 '장미' 연작을 선보이고, 안태영씨는 사실적인 묘사로 어린 시절의 순수를 담아낸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지난 1987년 창립된 광주청년미술작가회는 지금까지 27회의 정기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대주 작 '투영-자목련'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태안 인양 고려청자 '꿀단지' 공개

상감 매병 등 2점 '국보급'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꿀단지 고려청자'가 첫 공개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4일 "고려시대 침몰선박 마도 2호선에서 고려시대 상감청자매병(象嵌靑磁梅瓶)을 비롯한 각종 도자기와 곡물, 목·죽제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매병(梅瓶) 2점은 제작기법과 형태

가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알려주는 대나무 화물표(竹札)가 매달린 채 발견됐다.

화물표에 적힌 글씨를 판독한 결과 매병의 고려시대 이름이 준(樽) 또는 성준(盛樽)이었으며, 여기에는 밀(粟), 즉, 꿀을 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는 "이 배는 고창, 정읍, 영광 일대의 산물을 운송하다 난항량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Dinner Show

##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부가세포함)

·예매 및 문의 : 대표전화 ☎ 229-0000 / 예약실 ☎ 229-4711-2 (주말 및 휴일 11주최대형인투스 컨벤션파크로)

###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1관 슈렉포에버(더빙)(전제)	1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2관 오션스/마음이2/마법사의계자(전제)	2관 인셀션(전제)	2관 슈트(15세)
3관 슈트(15세)	3관 마법사의계자(전제)	3관 인셀션(전제)
4관 슈트(15세)	4관 이끼(18세)	4관 이끼(18세)
5관 이끼(15세)	5관 이끼(18세)	5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6관 명함정코난(전제)/슈렉포에버(더빙)(전제)	6관 도라에몽(더빙/전제)	6관 마음이2(전제)
7관 아저씨(18세)	7관 슈트(15세)	7관 마법사의계자(전제)/슈트(15세)
8관 인셀션(18세)	8관 슈트(18세)	8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9관 명함정코난(전제)/인셀션(18세)	9관 슈트(18세)	9관 이끼(18세)
10관 아저씨(18세)	10관 명함정코난(전제)	10관 인셀션(18세)
	10관 마음이2(전제)	

향토사랑! 영화사랑! 특별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 MEGABOX

1관 슈트(15세)	최고급관
2관 슈트(15세)	
3관 인셀션(18세)	
4관 이끼(18세)	
5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6관 마음이2(전제)	
7관 마법사의계자(전제)/슈트(15세)	
8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9관 이끼(18세)	
10관 인셀션(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대형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희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선요금 부과)

### CINUS

1관 교사2교생 실습(15세)
2관 이끼(18세)
3관 슈트(15세)
4관 오션스(전제)
5관 슈트(15세)
6관 아저씨(18세)
7관 아저씨(18세)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